



주 제:	“용서와 사랑”	“연중 제 23 주일”	2008년 9월 7일
복음 묵상:	마태 18,15-20	에제 33,7-9	[로마 13,8-10]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만나 그를 타이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들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에게 가서 화해하거나 조용히 이야기해서 오해를 풀도록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그를 찾아가 화를 내고 옥신각신 하다가 급기야 싸움을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잘못된 형제에게 해야 할 일을 단계적으로 가르쳐주십니다.

먼저 단 둘이 만나 그를 타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고 그래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다른 이가 나에게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가서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화해하도록 타이러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다른 이와 더불어 그의 회개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남에게 충고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릇된 판단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들임에 있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방법을 잘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형제를 받아들이고 단죄와 판단으로 갈라짐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원주 백학현 신부님 강론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2008년 성가대 피정(9/13)이 잘 진행되어 모든 성가대 가족들이 은혜중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와 참가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재훈 새실리아 자매님과 김 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채 간병중에 있어오니 하루 빨리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중에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십시오.
- 이 은순 아네스 자매님은 아직도 여행중입니다. 여행중에 주님함께 하시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서오십시오.

본당 주임 사제 황 선기 (마리아) 신부님과 보좌 사제 김 형준 (프란치스코)신부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축복이 듬뿍내리시어 성령안에 공동체와 하나되어 기쁘고 즐거운 사제생활이 되시길 기도중에 주님께 청해주시요.

+ 복음 [마태 18,15-20]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된 일이 있거든 단 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리하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확정하라' 는 말씀대로 모든 사실을 밝혀라. 그래도 그들의 말이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든 다 들어 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1분 명상

♡"아름다운 관계"♡



벌은 꽃에서 꿀을 따지만
꽃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을 도와 줍니다,

사람들도 남으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을 취하면서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것만 취하기 급급하여
남에게 상처를 내면 그 상처가 썩어
결국 내가 취할 근원조차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꽃과 벌 같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엔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은 세상 가득할 것입니다,